

‘不法 온상’ 밀양 케이블카 해결 모색

통도사, 官·民·社 대책 긴급 간담회

산림훼손과 불법건축으로 개통 2개월 만에 운행이 전면 중지된 밀양 얼음골케이블카의 문제해결을 위해 간담회가 열렸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는 1월 17일 경상남도, 한국화이바, 지역환경단체와 함께 향후 대책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가지산도립공원 보전을 위해 ‘밀양케이블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임희자 사무국장, 이근선 경남도 청정환경국장의 주제발표와 지정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이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불거진 문제에 해결점을 찾아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았다는 의미가 컸다.

임희자 사무국장은 “밀양케이블카 사업의 불법행위는 주요시설인 허부정류장, 중간지주탑, 상부정류장, 케이블카 케빈으로 구성되는 모든 시설물이 불법으로 건축됐다. 전후후무한 불법시설을 밀양 대표기업이 추진하고 밀양시가 승인한 것은 밀양시 전체가 부패한 지역사회라는 인식을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사무국장은 케이블카 업체 한국화이바에 대해 △‘상부승강장 높이조정

△하늘정원 철거 후 원상복구 및 훼손산림 복원 △가지산도립공원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경상남부-울산간 종교 시민사회 참여협의회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근선 경상남도 청정환경국장은 “가지산은 95%가 사유지이고 관리인원과 예산 부족, 보존에 대한 명확한 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케이블카 위법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가지산도립공원

시설물 불법 조성만 7건

건설업체 사실 일부 ‘수용’

“친환경 측면서 문제풀어야”

보전·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2013~2014년 공원계획 타당성 평가와 생태자원환경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도사 사회국장 도안 스님은 “밀양케이블카의 부끄러운 사례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노력 속에 자연보존과 친환경적 측면에서 잘 해결해야 한다”며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과 개발 역시 돈이 된다는 막연한 기대로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결사반대한다. 이를 위해 자연문화



통도사는 1월 17일 밀양 케이블카 불법시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통도사 일대를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제희 한국화이바 총괄부회장은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에게 사회의 일배를 울리며 “죄송하고 민망하다. 독자적으로 시행한 불법적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는 대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전향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한국화이바는 상부승강장 높이를 8.9m로 허가받고는 14.8m로 시공했고, 완공단계에서 다시 16.34m로 불법 증축했다. 또한 불법산림훼손, 중간지주대 위치변경 등 7건의 자연공원법과 건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은 “가지산 도립공원에 지역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영축산, 재약산, 신불산 등 영산과 통도사, 내원사,

표충사와 같은 천년고찰이 자리하고 있는 자연문화유산의 보고다. 돈을 벌기 위해 환경을 무차별 파괴하는 행위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각성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밀양케이블카는 2009년 1월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돼 2012년 9월22일 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한국화이바는 상부승강장 높이를 8.9m로 허가받고는 14.8m로 시공했고, 완공단계에서 다시 16.34m로 불법 증축했다. 또한 불법산림훼손, 중간지주대 위치변경 등 7건의 자연공원법과 건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호국불교 재조명 사업 본격화 된다

불교사회연구소, 2013년 사업계획 발표

서산대제 제향의례의 국가제향화, 의승군 관련 자료수집 및 세미나 개최, 의승군 설화집 및 일제강점기 호국불교 자료집 발간 등 새해 호국불교 관련 사업이 본격화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총회분과회의실에서 호국불교 자료회의를 열고 종단의 호국불교 사업 계획을 검토했다.

이날 자료회의에서 공개된 2013년 호국불교 사업은 △서산대제 제향의례 △조선 후기 남북한산성과 의승군 △의승군 민담 및 설화 △의승군 의례 △일제강점기 호국불교 자료집 발간 등이다.

총 예산은 3억원으로 문광부 예산을 제외한 자부담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불교사회연구소가, 1000만원은 대흥사가 부담한다.

세부적으로 서산대제 국가제향화 사업은 4월 해남 대흥사 서산대제, 9월 북한 묘향산 보현사 제향의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조선 후기 남북한산성과 의승군 사업은 남북한산성 축조 및 방위를 담당한 승군

규모와 기능, 화엄사 역할과 위상, 남북한 산성의 군사적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조사 연구와 세미나로 진행되며 연구결과는 논문집으로 발간된다. 의승군 민담 및 설화 관련 사업은 지역사찰 답사조사를 통해 관련 사적을 조사해 논문집으로 발간된다. 의승군 의례, 서산대사 등 승상 관련

서산대제·의승군 연구 등

국고 3억원 투입 사업 진행

사업은 당시 국가와 민간 차원의 의례 및 문헌 연구와 함께 사적 조사를 실시해 논문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연말 호국불교 자료집 발간을 위해 삼국, 고려시대, 대흥사 등 호국불교사료를 불교사회연구소 차원에서 수집하기로 했다. 2012년 발표된 논문집은 1월, 2012년 수집한 조선시대 호국불교 자료는 자료집으로 2월 말 경 출간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종단 전산화 발전에 기여”

봉은사, 동행에 전산화 기금 1억 원 쾌척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진화)는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에 종단 전산화 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봉은사에서 나서서 종단 총무행정 전산화 발전을 위해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며 “종단 전산화 불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직영 사찰 주지이면서 종단 전산화 정책 특보를 맡고 있는 만큼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 보급된 ‘가람지기’도 종도들의 호응이 좋다. 종단 전산화 불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사서실장 심경, 아름다운 동행 사무처장 혜일, 기획국장 남전 스님이 참석했다. 신종일 기자



서울 강남 봉은사는 1월 17일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종단 전산화 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사진 왼쪽부터 아름다운동행 사무처장 혜일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10.27법난위 현역 군인 철수

사무국 중심 조직 개편

10.27법난위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지현 스님)에 파견된 현역 군인들이 1월17일 전원 철수했다. 이로써 현역 군인으로 법난위에서 근무하던 직원 7명은 모두 복귀한 상태다.

조계종은 그동안 법난의 가해자인 군인 10.27법난위의 피해자를 심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라며 중앙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 철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현역 군인들의 복귀를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10.27법난위원장 지현 스님은 “현역 군인 파견으로 업무상의 차질을 빚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향후 인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측과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지원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원단장 보직은 사라지고 사무국장 중심의 사무국이 꾸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구성원 쇄신으로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중앙 교역직 스님 月 보시금은 과세 대상”

조계종 중앙총회, ‘종교인 과세’ 논의

새해 벽두 ‘뜨거운 감자’가 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조계종 중앙총회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항적)는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주제로 의장단, 분과위원장, 재정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영로 세무법인 상성 대표가 ‘사찰과 스님의 과세방안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 한 대표는 “기획재정부 제세실에 문의한 결과 확정된 것은 없다는 의견이고, 설령 스님이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 해도 근로 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내부적인 검토는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세 여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외국과 이웃종교 과세 사례에 대해서는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은 종교단체와 종교인에게 대체로 과세를 하고 있다. 한국의

가톨릭도 1994년부터 근로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종교단체 과세에 대해 한 대표는 “사찰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라며 “하지만 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 있는 만큼 영리 사업은 비과세 대상이

‘수행=근로’ 인식엔 난색

과세시 종단 부담 91억 원

아니다. 모든 사찰의 사업이 면세가 된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단순 활동비가 아닌 개인이 받는 보시금은 소득임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교역직 스님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사실상 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활동비 성격의 보시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활동비는 사중에서

지급되는 재화인만큼 영수증 등을 첨부해 장부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가족이나 소유주택이 없기 때문에 면세점 이하라도 적용이 안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로소득세 도입 이후 종단 스님들에게 부과될 과세 금액 규모에 대한 예상 수치도 발표됐다.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중앙총무기관 교역직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70여 명이 월 200만원, 전국 본말사 소임자 2880여 명이 월 150만원 정도의 보시금을 받고 있고 가정하면, 연간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는 3억여 원”이라며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 부담금이 91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총회의장 항적 스님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종도들의 공감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세금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종회 차원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큰스님 참선 안심법회



禪定の 힘으로 삶의 뜻을 밝히자!

참선 안심 법회는 영원한 생명, 무한한 능력, 찬란한 광명이신 부처님 말씀을 부산 롯데호텔 대연회장에서 3일동안 무료로 공부합니다. 불자 여러분! 영생해탈과 운수대통은 자성에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법회일 : 2013년 양력1월29일 ~ 31일까지(3일간)

법회시간 : 매일 오후 7시

주최 : 대한불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부산불자 모임

법회장소 : 부산 롯데호텔 대연회장

연락처 : 051-553-5258 / 042-825-1724